

# 칼빈주의자 정암 박윤선(朴允善) 목사 (1905-1988)의 생애와 그의 칼빈주의 사상



이승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우리나라의 칼빈주의를 논의하는 일에서 정암 박윤선 목사의 생애와 사상을 생각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성구 교수께서 잘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신학을 논하려고 한 다든지, 칼빈주의 사상을 말하려고 할 때, 박윤선 박사를 제외하고는 언급을 할 수가 없다.”<sup>1)</sup> 참으로 정암은 자신이 유학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를 충실히 배웠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개혁신학에 충실한 사상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리하여 헨리 미터의 『칼빈주의』라는 책을 그의 친구인 김진홍 목사와 함께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하고,<sup>2)</sup> 개혁신학을 잘 소개하고, 개혁신학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다 드렸다고 할 수 있다. 한위럼(William Brewster Hunt, 1869-1953) 선교사의 아들이요 방위량(William B. Blair) 선교사의 사위이기에 한국을 잘 아는 선교사로 계속해서 한국 선교를 감당했던 한부선(韓富善, Bruce Finley Hunt, 1903-92) 선교사는 “박윤선 목사는 내가 아는 어떤 한국인보다도 더 칼빈주의를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3)</sup> 간하

1)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수원: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369. 이 글은 본래 『신학지남』 28/2 (1989)에 실렸던 글이다.

2) H. Henr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39), 『칼빈주의 기본사상』, 박윤선, 김진홍 공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59).

배 선교사도 정암은 “열정적이며 헌신된 칼빈주의자”라고 하였다.<sup>4)</sup> 정암 자신은 자신의 “평생 중요 사업은 신학교육과 성경 주석 사업”이라고 말하였는데,<sup>5)</sup> 이 둘 다 칼빈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칼빈주의 신학을 터득하기 전에는 졸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sup>6)</sup>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 처지에서 일관성 있게 주석을 편찬”하려 하였다고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다.<sup>7)</sup>

정암이 이 땅에 칼빈주의에 미친 공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그의 생애를 간단히 생각해 보고(I), 그의 칼빈주의 사상을 소개한(II) 후에 그의 칼빈주의적인 실천적 가르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III).

3) 1947년 6월 28일자로 헛트가 OPC의 선교부 총무였던 Robert Marsden에게 보낸 편지, 서영일, “To Teach and to Reform: The Life and Times of Dr. Yune Sun Park” (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2), 장동민 옮김,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220f.에서 재인용. 한부선 선교사의 부인은 한가태(Katharine Blair Hunt)이다. 박응규, 한부선 평전 (서울: 그리심, 2004), 109.

4) 간하배가 Galbraith에게 1961년 7월 27일자로 보낸 편지 중에서,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94에서 재인용. 홍치모 교수도 정암은 “한국 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요 또한 성경 주석가였다”고 한다(“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사상”, 『박윤선 신학과 한국신학』 [서울: 기독교 학술원, 1993], 8). 허순길 교수도 정암은 “한국에 참된 칼빈주의(개혁주의) 신학을 바로 이해하고 심은 첫 번째의 신학자라하겠다”고 말한다(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서울: 영문, 1996], 87).

5)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11-40, at 38. 이 글은 본래 1980년 3월 8일부터 5월 24일간 「크리스찬 신문」에 10회에 걸쳐 연재된 것을 「신학 정론」 7/2 (1989): 162이하에 실었던 것이다. 정암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서영일은 이것이 “아마도 남아 있는 자전적인 글의 전부라고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다(『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39). 이것에 기초한 박윤선의 「성경과 나의 생애」(서울: 영음사, 1992)도 중요한 그 자신의 글이다. 최근에 나온 박혜란의 『목사의 딸』(서울: 아가페 북스, 2014)에서도 초기의 역사적인 자료는 다 이 책에 의존하고 있다. 박혜란은 이 책에 의존하면서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말하면서 정암의 신학과 삶을 비판하지만, 역사적 것들은 상당히 박윤선의 「성경과 나의 생애」에 의존하여 그로부터 인용하면서 진술한다. 때로 정암은 이 둘에 더하여 설교사역과 목회 사역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Cf. 박윤선, “Personal Touch,” The Presbyterian Guardian 34/4 (April 1965), 54(“나의 사역은 세 종류입니다. 신학교 교육, 주석 집필, 그리고 목회사역입니다.”); 박윤선, “신학 연구에 바친 생애”, 『신앙계 (1983년 1월): 39: “나의 일생 동안 나는 세 가지를 좋아하였습니다. 신학 교육, 주석 집필, 그리고 설교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에 나의 생애를 완전히 바쳤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위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77에서 재인용.

6)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7

7)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8.

이것은 정암에 대한 오해가 많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작업의 한 부분이다.

## I. 정암의 생애

1905년 12월 11일(음력)에<sup>8)</sup>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 장평동 해변가에 있는 351번지에서<sup>9)</sup> 출생한 정암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평북 철산 해변의 작은 마을”<sup>10)</sup> 안에서 살던 그의 가정은 “부모님(부친 박근수(朴根秀) 모친 김진신(金眞信)과 형님 박윤석, 그리고 위로 누님이 두 사람, 아래로 여동생 한 사람으로 구성된 농부의 가정이었다”고 한다.<sup>11)</sup> 열심히 일하여 이웃을 돕고 가족을 잘 보살피는 아버지는 선량한 분이셨으나 기독교를 믿지는 않으셨고,<sup>12)</sup> 정암 자신도 불신이었다. 그는 “9살 때 [마을 부호의 사랑방에 있던]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며 근면히 공부하여 사서삼경은 [주해까지] 거의 다 암송하였다”고 한다.<sup>13)</sup> 그러다 19세 되던 해에<sup>14)</sup>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정암의 고향

8) 정암이 태어난 이 때가 1905년 11월 15일에 맺어진 을사늑약 한 달여 후라는 지적과 함께 당시 정황에 대한 논의로 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사상」, 9f.와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32f.을 보라.

9) 이 번지는 신복운 교수님께서 제시하여 주셨다.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나엘,」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69-91, at 70.

10)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2.

11)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1. 물론 어머니는 그저 당시 상당수의 여인들을 부르던 대로 김씨였으나 정암이 어머니께서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이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에 가 있을 때 어머니께서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자 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한다. Cf.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8f.;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서울: 영음사, 1992), 77;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72f.; 김영재, 「박윤선」(서울: 살림, 2007), 49. 정암의 형인 박윤석 씨는 1950년 1월 4일 후퇴 때에 월남하여 부산에서 정암과 재회했다고 한다(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사상」, 9; 박혜란, 「목사의 딸」, 40f.).

12) 그래서 정암은 항상 “참으로 믿음은 선물이며”, “인간의 착한 마음이 믿음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3). 정암은 항상 그의 아버지가 사람이 좋아서 남들을 잘 보았다는 것과 열심히 일하여 그 노력에의하여 중산계급으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암의 가난한 어린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박혜란의 비판은(박혜란, 「목사의 딸」, 33) 실상 정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다.

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선천군 국산면 장공동에 있던 (1885년에 “김도순이라는 부자가 사립으로 설립한 일종의 기독교 학교”인)<sup>15)</sup> 대동소학교 6학년에서 입학하여 1년 동안 공부하고, 최우등으로 졸업했다고 한다.<sup>16)</sup> 이 학교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학교였다.<sup>17)</sup> 그러나 그 때는 “선생님들의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사실상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셨다.<sup>18)</sup> 이는 대동학교에 가기 전 수년 동안 15리(6km)를 걸어서 “자발적으로”<sup>19)</sup> 출석한 동문동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sup>20)</sup>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암의 교회 출석은 그의 10대 중반에서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김영재 교수는 정암이 17세 때에 동문동 교회에 출석하였다고 하고 있다.<sup>21)</sup> 1921년이 그 시작이라고 제시한 자료도 있다.<sup>22)</sup> 또한 이 학교 다니던 중 18세에 당시 15세 되던 김예련과의 혼인을 하였다고 하였다(1922년 11월).<sup>23)</sup>

1923년 3월 최우등으로 대동학교를 졸업한<sup>24)</sup> 후에는 4월에 (남강

13)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2. 안만수 목사님은 정암이 서당 다니던 것을 1913-1922으로 제시하고 있고(안만수 편, “내가 닦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 정암 박윤선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초찬기도회 및 발표회, 2015년 1월 9일 분당한신교회당, 자료집, 62의 연보), 서영일은 서당 다니던 것이 1914년부터 22년까지라고 하고 있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43, n. 64).

14)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2. 홍치모와 서영일은 17세로(홍치모, “박윤선 목사와 그의 시대”, 『신학지남』 [1988년 8월]: 86=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사상”, 10;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43) 또 때로는 만 16세로 제시한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46). 이는 서 박사가 1905에서 1922까지를 서양식으로 연령을 계산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재 교수는 1922년을 18세 되던 해에 라고 하고 있다(김영재, 『박윤선』, 17).

15)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7.

16)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2.

17)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4.

18)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4.

19) 박윤선, “원로와의 대화(2): 유진원과의 인터뷰 (서울 극동방송국, 1983)에 근거하여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49, n. 85.

20) Cf.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5.

21) 김영재, 『박윤선』, 16.

22) 안만수 편, “정암 박윤선 목사”, 62.

23)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8. 박혜란의 『목사의 딸』에서는 김예련(표지 내지), 한자로는 애란(愛蘭), 또는 김 알렌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박혜란, 『목사의 딸』, 66).

24)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50f.

이승훈이 1907년에 세운) 정주 오산학교 2학년에 입학하였고, 그 학기 말에 이구하 교장 배척 데모가 일어나 방학식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다가, 1924년 봄에 보결입학 시험을 치루고 선천의 신성[信聖]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갔다고 한다.<sup>25)</sup> “신성중학교는 평북 선천에 설립된 기독교 학교로서 1906년 4월 미북장로교 선교부와 함께 (위트모어[Norman C. Whitemore] 선교사의 조사[助士]였다가 1907년에 처음으로 목사가 된 7명 중 하나였던) 양전백[1870-1933], 안준, 김병농, 김석창 등이 설립한 중고등 과정의 남학교였다.”<sup>26)</sup> 신성학교에서도 우유배달, 김매기, 변소 청소, 소 먹이기, 그리고 선천 YMCA에서 경영하는 ‘무산 아동 교육’ 교사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날마다 예배할 때 “예수를 잘 믿어 보려고 힘썼다”고 한다. 특히 “설교를 듣는데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sup>27)</sup> 이 때 정암은 주일마다 선천북교회에 출석하였는데, 그 때 담임 목사님이 신성 중학교 설립자의 한 분이었던 양전백 목사였다.<sup>28)</sup> 또한 방학이 되면 학우들과 함께 전도대를 조직하여 여러 지방으로 가서 전도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sup>29)</sup>

이즈음 첫째 자녀인 박경조가 태어나 자라다가 심히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정암은 이 때의 자신을 평하면서 “공부에는 열중했으나 가사를 돌보지 못했다는 느낌이 언제나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sup>30)</sup> 그 후에 정암은 아내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에 선천으로 데려와 기초적인 가르침을 주어 선천읍 보성여학교에 입학시켰다고 한다.<sup>31)</sup> 이에 대해서 김영재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다:

25)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8.

26)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73.

27)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9.

28) 김영재, 『박윤선』, 22.

29)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9. 이 때 일본 경찰의 주목과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30)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1.

31)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1. 이 상황을 묘사하는 박혜란, 『목사의 딸』, 25f.을 보라.

박윤선은 늦게야 공부를 시작했으나 자신이 공부하는 것을 참으로 즐겼으므로 아내와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부와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내를 공부하게 한 일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의 인품을 엿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sup>32)</sup>

정암의 딸도 이에 대해서는 “이 일은 짧은 어머니의 생애를 위로하 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쓰고 있다.<sup>33)</sup>

그 뒤 정암은 1927년(23세) 4월에 평양 송실전문학교 문과에<sup>34)</sup> 입학하여 공부하고 1931년 3월에 졸업하고, 그 부인도 보성여학교에서 4년을 공부하고 졸업했다. 이 송실 전문 시절인 1931년 정암의 부친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sup>35)</sup> 송실전문학교에 다닐 때에 이유택, 송영길, 김철훈 (이상 후에 목사가 되었으나 공산당 박해로 순교했다 함),<sup>36)</sup> 박기환, 방지일, 김진홍 등과 함께 모란봉 뒤 숲 속에서 소위 “조기(早起) 부대”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새벽 기도 운동을 하였고, 이 때도 학생회 종교부장을 하던<sup>37)</sup> 정암은 방학 때마다 전도대원으로 만나 고향인 철산 지방에도 가서(1929년 7월 1일부터 19일)<sup>38)</sup> 전도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sup>39)</sup>

송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1931년에 정암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

32) 김영재, 『박윤선』, 24f.

33) 박혜란, 『목사의 딸』, 26.

34) 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사상”, 11. 영어과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Cf. “정암 박윤선 목사 약력”, 『경건과 학문』 (서울: 영음사, 1987), 11;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373. 그러나 서영일은 송실전문의 공식 역사에 근거해서 1931년 3년제 농과가 있기 전에는 그저 문과만 있었다고 한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 신학연구』, 68). 홍치모와 서영일의 표현이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35) 김영재, 『박윤선』 (서울: 살림, 2007), 15.

36)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3.

37) Cf.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75.

38) Cf.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71.

39)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2f.

40) 박윤선, “신학 연구에 바친 생애”, 『신앙계』 (1983년 1월): 39.

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결심하고”<sup>41)</sup> 평양 장로교신학교에 입학했다.<sup>41)</sup> 그 때부터 그는 “성경 해석에 취미를 가지고 방학 때는 주석을 몇 권 빌어 가지고 시골에 가서 성경을 연구 하곤 했다”고 하며 “신약원어와 구약 원어에 주력했고 독일어는 자습하는데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sup>42)</sup> 당시 신학교 교장이던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의 나부열(羅富悅, Stacy L. Roberts, 1881-1946)에게 배운 것을 강조하면서 그는 많이 가르치면서도 언제나 부드러운 말로 가르쳤기에 학생들에게 많은 감화를 끼쳤다고 하며,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언제나 실천에 옮기는 진실한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다.<sup>43)</sup> 당시 맥코믹 신학교 출신의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1864-1939),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요 할리팩스 장로교신학교(Presbyterian College in Halifax) 출신의 업아력(業雅力, Alexander Francis Robb, 1872-1935), 남장로교 선교사인 이눌서(李訥瑞, William D. Reynolds, 1867-1951) 등의 “평양신학교 교수진은 믿음과 덕의 감화로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다.<sup>44)</sup> 또한 한국인 교수들인 신약학의 남궁혁 박사에 대해서는 “무게 있는 인격자”라고 하였고, 구약학의 이성휘 박사는 “겸손한 목회자로 서문밖 교회를 주로 도우셨다”고 하시고, 박형룡 박사에 대해서는 “인격적 감화가 큰 동시에 신학자로서 인상 깊은 교수”라고 하시면서,<sup>45)</sup> 박형룡 박사는 “학구적으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유익을 많이 주었다”고 하시면서 “교수직에도 능하셨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데 많은 공적으로 남기셨다”고 하셨습니다.<sup>46)</sup> 또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독일이었지만 호주 장로교 선교사인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 1868-1939) 교수의 가

41)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3f., 27. 1918년으로 된 것은 1931년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27).

42)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4.

43)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4.

44)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4.

45)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4.

46)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5.

르침과 함께 공부하던 10여명의 학생들을 언급한다.<sup>47)</sup>

평양신학교에 다닐 때에도 방지일, 김진홍 제씨와 함께 「겨자씨」라는 잡지를 내었고, 송실중학교 학생 방문을 위한 사감도 하고,<sup>48)</sup> 주일에는 모란봉 뒤에 가현리에 있는 가현교회에서 시무하였다고 한다.<sup>49)</sup> 그 때를 돌이켜 보면서 정암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그 때의 열심은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열렬했던 것 같다. 나의 생활 형편은 역시 어려웠지만, 그 때도 기도 생활에 열중했기 때문에 생활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었다.”<sup>50)</sup> 평양신학교 2학년 때 맏아들 춘호 씨가 태어나고(1932년), 2년 후에 맏딸 춘자 씨가 태어났다고(1934년) 한다.<sup>51)</sup>

정암은 1934년 3월에 평양신학교 29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고,<sup>52)</sup> “가족은 고향 철산 장평리 초가삼간을 얻어 머물게 하고”, “성경 원어를 연구하려고 세계적 권위자인 메이천 박사를 찾아가”기 위해<sup>53)</sup> 1934년 8월 4일에<sup>54)</sup> 한국을 떠나 “일본 고베(神戸)에서 지지부마루라는 배를 타고” 27일간 여행하는 중 요한계시록을 외우고,<sup>55)</sup> 필라델

47)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5.

48)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6.

49)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7. 서영일과 김영재 교수님은 가현교회를 섬긴 것은 송실전문 학생으로 있을 때부터라고 하고 있다.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76; 김영재, 『박윤선』, 32f., 41f. 이는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48을 반영한 것이다.

50)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59.

51)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7. Cf. 박혜란, 『목사의 딸』, 26.

52) 29회 졸업 인원은 31명이었다고 한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22회 회록>(1934), 46.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374, n. 7에서 재인용. 정암 졸업한 1934년에 칼빈 출생 425주년을 맞아 「신학지남」 76 (1934)에 칼빈 특집이 실린다. 남궁혁이 “칼빈 신학과 현대 생활”, 송창근이 “요한 칼빈의 일생”, 박형룡의 “칼빈의 예정론”, 채필근의 “칼빈의교회론과 교회 정책”, 이눌서의 “칼빈 신학과 그 감화”, 라부엘의 “성경주석가로 본 칼빈”, 광안련의 “강당의 칼빈”과 칼빈 성교 번역본이 실렸다고 한다. 그리고 1937년에 합일돈(Hamilton) 선교사가 “칼빈주의”, 『신학지남』 95 (1937): 19-23을 게재 했다. Cf. 조경현, 「초기 장로교 신학 사상」 (서울: 그리스심, 2011), 293, n. 165.

53) 친구들과 같이 내던 「겨자씨」 1934년 8, 9월 합병호에 실린 글을 방지일, “우리에게 있는 나다나엘”,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55에서 재인용.

54) 8월 4일이라고 명기한 것은 서영일 뿐이다. 그는 1월 13일에 입학 원서를 보냈고, 2월 12일자로 Paul Woolley 교수가 보낸 편지에 근거하여 이 날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것도 말한다.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27.

55)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8.

피아에 도착하여 9월 학기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입학하여 특별 학생으로 1935년 봄 학기까지 공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웨스트민스터는 200불의 장학금 지급하고, 수업료도 받지 않고 기숙사 방도 제공하였다고 한다.<sup>56)</sup> 특별학생으로 공부하던 1934년 가을에는 기초 히브리어, 고급 히브리어, 헬라어, 복음서의 역사를 공부하였고, 25년 봄에는 히브리어 강독, 본문비평, 요한 문서, 예수의 탄생, 로마서 4-11장, 칼빈의 신학을 공부했다.<sup>57)</sup> 그 다음 해인 1935년 가을-1936년 봄 학기까지 신약 전공의 대학원(Th. M.) 학생으로 등록하여, 창세기 1-12장, 아람어, 공동서신, 바울과 그의 환경, 요한계시록, 성경적 종말론, 히브리어 연구, 1936년 봄에는 아람어, 누가복음, 히브리서, 위기 신학, 그리고 초급 아람어를 공부하고,<sup>58)</sup> 메이천 박사의 지도를 받아 공부를 마쳤다.<sup>59)</sup> 이 때 메이천 휘하에서 그와 같이 공부한 사람이 한국 선교사 한위렴(William B. Hunt) 선교사의 아들로 평북 정주 출신의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라고 불리는<sup>60)</sup> 한부선(Bruce F. Hunt, 1903-1992)이다.<sup>61)</sup> 한부선은 휘튼 대학교

- 
- 56) 1934년 2월 12일자 Paul Woolley 교수의 입학 허가 편지에 근거한 서영일의 진술(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28).
- 57)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6. “박윤선의 Transcript, 1934-1935”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 근거한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34의 정보.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7. 서영일과 김영재 교수님은 가현교회를 섬긴 것은 송실전문 학생으로 있을 때부터라고 하고 있다.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76; 김영재, 『박윤선』, 32f., 41f. 이는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48을 반영한 것이다.
- 58) “박윤선의 Transcript, 1935-1936”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 근거한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34f.의 정보.
- 59) 이에 대해서는 특히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2-35를 보라. 또한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9. 이를 Th. M. 수료하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학생들에게 1944년에 이전 수료증을 소지 한 사람들에게 신학석사 학위를 수여하였기에 Th. M. 학위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암은 1951년에 Th. M. 학위증을 받았다고 한다.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42, n. 112 참조하라.
- 60) 박용규, 『한부선 평전』 (서울: 그리스심, 1004), 15.
- 61) Cf. 한부선, “박윤선 목사와 나,”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124-27, at 124f.; *Catalogue, 1935-1936*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35-36), 40에 근거한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33. 서영일은 당시 헨리 반틸(Henry R. Van Til)이 M. Div. 2 학년이었고, Stanford Reid와 Francis Schaeffer가 3학년이었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

와 러저스(Rutgers) 대학교를 마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924년에 입학하여 1928년에 졸업하고,<sup>62)</sup> 그해인 1928년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청주 지역에서 사역하다가<sup>63)</sup> 안식년을 얻어 1935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연구를 하였기 때문이다.<sup>64)</sup> 정암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진정한 기독교”를 발견하였고,<sup>65)</sup> “칼빈주의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sup>66)</sup> 정암 자신은 이렇게 말한다:

..... 마침내 웨스트민스터에서 나는 칼빈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나는 이제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깨닫고 한국으로 돌아 왔다.<sup>67)</sup>

그가 교육받았던 평양 신학교는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이기는 하였지만, 선명한 칼빈주의를 전하지는 못하였다”고 한 바 있다고 한다.<sup>68)</sup> 이에 근거해서 정암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인 허순길은 “그가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와 그 심오함을 깨닫게 된 것은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였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69)</sup> 정암 자신도 자신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칼빈

62) 박응규, 『한부선 평전』, 82, 92. 그와 같이 졸업한 사람 가운데 권세열(Francis Kinsler) 선교사와 백낙준도 있었다고 한다(92, 93).

63) 박응규, 『한부선 평전』, 107.

64) 박응규, 『한부선 평전』, 192. 한부선은 1936년에 독립선교부의 파송으로 하얼빈에서 사역하다가(1936-1938), 후에 정통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로 1942년까지 사역하다 추방되었고(박응규, 『한부선 평전』, 197), 후에 다시 파송 받아 1946년 10월 28일에 부산에 와서 고려신학교에서 섬기게 된다(334).

65)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38.

66)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46.

67) 박윤선, “신학 연구에 바친 생애”, 『신앙계』 (1983년 1월): 39.

68) 박윤선, “한국에서의 칼빈주의”, 부산의 복음주의 도서관에 제출한 미간행 논문(1958), Harvie Conn,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29 (November 1966), 51,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46에서 재인용.

69)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장로교회(고신) 50주년 회년 기념』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2002), 403, n. 40.

주의 신학 지식을 재정비하게 된 것이 성경 주석 사업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한다.<sup>70)</sup>

1936년(31살) 8월에 귀국하여 표준 주석 작업을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종교 교육부 편집실 근무와<sup>71)</sup> 평양신학교 원어 강사, 고등성경학교 시간 강사 등 여러 일을 하다가,<sup>72)</sup> 아마도 신사 참배 문제로 평양의 신학교가 1938년에 한 학기 마치고 자진 폐교하여 일자리가 없어졌고, 더 중요한 이유로는 아마도 신사 참배를 피하기 위해서,<sup>73)</sup> 그리고 동시에 “원어와 신학을 더 알기 위해”<sup>74)</sup> 1938년 가을에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1940년까지 개인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이 때 특히 원어와 반틸의 변증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정암이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인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가 가(可)하다는 안타까운 결정이 내려졌다. 정암의 두 번째 미국

70)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2.

71) “제가 박형룡 박사님을 도와 표준 성경주석 원고를 읽고 편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때 성경주석을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나의 삶을 바쳐 이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박윤선, “원로와의 대화(4)”,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61, n. 28에서 재인용. 또한 김영재, 『박윤선』, 71도 보라. 박형룡과 박윤선 공저로 나온 표준주석의 「고린도 후서」는 실질적으로 박윤선 목사의 작품으로 이는 1938년 6월에 출간되었다. Cf. 홍치모,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291; 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사상”, 8. 또한 박윤선이 메이첰에게 보낸 1936년 9월 3일자 편지: “저는 지금 고린도후서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해석 방법에서 유일한 참된 방법이라고 믿는 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성경 해석 강의 시간에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내 영혼 속에 살아 있습니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38에서 재인용). 또한 “박윤선과의 인터뷰”, 『기독교일보』, 1979년 4월 7일; 그리고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59f., 303; 김영재, 『박윤선』, 72도 보라.

72) 이 때 처음 쓴 정암의 논문이 “Karl Barth의 성경관에 대한 비판”, 『신학지남』 19/4 (1937년 7월): 31-34; “Karl Barth의 계시관에 대한 비판”, 『신학지남』 (1937년 9월): 32-35, 77이다.

73)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69에서는 이를 시사한 후에 “분명치 않다”고 말하면서도 178에서는 이를 더 강하게 말한다. 특히 그의 임종 자리에서 이를 밝혔음을 명백히 한다(387). 김영재는 “그는 후에 두 번째 유학은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맞서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고 쓰고 있다(『박윤선』, 77).

74) 이것은 박윤선이 R. B. Kuyper에게 1938년 5월 4일자로 보낸 편지에서 인용한 것이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65f., n. 50). 그러므로 최소한 5월부터 박윤선은 미국에 다시 갈 생각과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유학 시기는, 김영재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sup>75)</sup>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시기에 정암은 1938년 가을 학기에는 시리아어, 연구과목으로 히브리어, 아랍어, 성경 아랍어를 하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논문을 썼다고 하고, 1939년 봄 학기에는 연구로 히브리어, 아랍어, 시리아어, 골로새서를 하고, 논문으로 변증학(위기 신학)을 8시간 한 것으로 나온다.<sup>76)</sup> 1939/40년의 가을 학기에는 고급 시리아어, 교회사, 교리적 설교를 듣고, 변증학 논문으로 4시간 인정받은 것으로 나온다. 1939년 4월에 나온 미국 교계지에 실린 그의 글을 보면 그가 반틸과 그의 변증학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가 잘 나타난다:

그[C. Van Til]는 기독교 유신론을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변증함으로 (칸트와 플라톤의 체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체계가 의지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반틸 박사야말로 현대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위대한 신학자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비기독교적 공격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의 체계는 단순한 인간의 사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제시된 방어의 체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다. 주께서 한국에서 그의 진리를 방어하는 데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를!<sup>77)</sup>

이와 같이 성경주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어학과 반틸의 변증학을 잘 공부하고서 다시 귀국할 때인 1939년 10월에 정암은 동경에서 오랫동안

75) 김영재, “신사참배와 한국 교회의 신앙,” 『신학지남』 (1984년 12월): 122.

76) “박윤선의 Transcript, 1938-1940”(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 근거한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66.

77) Yune Sun Park, “The Korean Church and Westminster Seminary,” *The Presbyterian Guardian* (April, 1939): 72,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67f.에서 재인용.

만에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면서<sup>78)</sup> 수개월간 사설 언어 강습소에서<sup>79)</sup> 독일어를 공부하시다가,<sup>80)</sup> 평양신학교가 신사 참배 문제로 폐교되어 있었기에 만주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신학교를 세우고자 하던 뜻을 따라 만주에 가서 1940년 3월에 만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신경(新京) 노회에서<sup>81)</sup> 목사로 임직하여 만주 오가황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리고 배자상 교회도 시무했다고 한다. 조금 후에 봉천 북능(北凌) 지방에 세워진 만주신학원(현 동북신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로 사역하였다.<sup>83)</sup> 후에 박형룡 박사님도 신사참배 문제로 동경에 망명 중에 초빙받고 일본으로부터 해로로 이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셨다. 당시 이 학교는 박형룡 박사와 정암이 신사 참배하지 않도록 하면서 교장인 정상인(鄭尙仁) 목사를 비롯해 다른 모든 이들과 학생들도 다 신사 참배를 하였다고 한다.<sup>84)</sup> 이 때 정암도 한번 신사 참배하였다고 1950년 어떤 목회자 수련회에서와 합신 5회 졸업생 최미희와의 인터뷰에서 정암

- 
- 78) 박혜련은 이 때에 대해서도 서영일의 논문에 의존하여 말하고 있다. 박혜란, 『목사의 딸』, 31. 그래서 “그 때 다섯 식구가 어떤 방편으로 생계를 꾸렸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는 것이다(31). 1941년생이므로 자신이 아직 태어나기 이전 상황이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해가 간다. 그러므로 그 이전 시기에 대하여 30쪽 이전까지 한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79)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79; 아마 그를 따라서 김영재, 『박윤선』, 72.
- 80)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나엘,”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69-91, at 79. 또한 홍치모,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292도 보라.
- 81)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나엘,” 79; 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사상”, 19.
- 82)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나엘,” 79. 김영재 교수님은 봉천(오늘의 심양)에서 6Km 떨어진 우지황 교회를 목회하면서 배자상 교회에서도 격주로 설교를 담당하였다고 하신다(김영재, 『박윤선』, 82).
- 83) 여러분들은 1940년대부터라고 하나, 서영일은 1941년 4월부터라고 하였고(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80), 김영재도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이 1941년에 이 신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하였다(김영재, 『박윤선』, 82). 정암의 오랜 친구인 방지일은 만주로 간 행동이 “경솔”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83).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 84) 남영환, “은사 박윤선 목사님의 성역 50년을 기하여”, 『경건과 학문』, 45와 방지일 목사와의 인터뷰에 근거한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80의 결론을 보라.
- 85) 박윤선, “최미희와의 인터뷰”, 1984년 12월 10일, 최미희, “박윤선 목사의 생애와 사상”(합신 M. Div. 졸업 논문, 1984), 37; 그리고 이에 근거한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82, 396도 보라. 또한 안광국, 『해방의 교회: 안광국 목사 유교집』(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9), 267; 박혜란, 『목사의 딸』, 35도 보라.

자신이 말하였다고 한다.<sup>85)</sup> “그는 신사 참배에 참여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번민”하였다고 한다.<sup>86)</sup> 정암은 “신사 참배와 일본기에 대한 경례 문제로 고민하다가 드디어 사임하고”,<sup>87)</sup> 봉천에서 80km 떨어진 공업도시 안산(鞍山)으로 가서<sup>88)</sup> 해방 직전 2년 동안은 계시록 주석 쓰는 일에만 집중하셨다고 한다.<sup>89)</sup>

그러다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1845년 8월 27일에<sup>90)</sup>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 철산리로 돌아 왔다.”<sup>91)</sup> 이곳에 있던 6개월 동안도 정암은 장평교회를 목회했다고 한다.<sup>92)</sup> 6개월 후인 1946년 2월에 당시 장경재 전도사(1918-2000)에게 장평교회를 부탁하고 가족을 데리고 월남하여,<sup>93)</sup> 3월 1일에<sup>94)</sup> 서울에 와서 이태원의 한 적산가옥을 빌려 수개월 머물다가 출옥 성도인 한상동 목사(1901-1976)께서 4월에 방문하여<sup>95)</sup> 제시한 평양신학교 전통을 잇는 신학교를 세우자는 뜻에 동의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암은 5월에 경남 부산에 갔다가 진해로 옮겨 예전에 일본 해군 수련원으로 사용되던 건물로 강주선 목사가 빌

86)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396.

87) 홍치모, “박윤선 목사와 그의 시대”, 『신학지남』(1988년 가을호): 93, 아마도 1943년 7월에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Cf. “약력”, 『경건과 학문』, 11;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374.

88) 이 정보는 김영재, 『박윤선』, 83에서 온 것이다.

89)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2. 이 때 도운 계노순(桂魯純) 집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계 집사는 전답을 팔아서라도 이 일을 도우려 하였다고 한다(김영재, 『박윤선』, 85). 홍치모 교수는 “해방되기 1년 전부터 시골에 들어가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홍치모,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292).

90) 이 날자는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08에 주어진 것이다.

91)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2. 이 때에 대한 박혜란의 회고로 박혜란, 『목사의 딸』, 35f. 를 보라.

92) 김영재, 『박윤선』, 85.

93) 장경재, 『죽음에서 살려 주신 하나님』(서울: 화성교회 출판, 2000), 75에 근거한 김영재, 『박윤선』, 85. 이 때도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흐레이다너스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지니고 왔다고 홍치모 교수께서 전하신다(홍치모,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의 신학”,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293).

94) 이것이 1946년 3월임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1일을 밝히 말하는 이는 정성구 교수, 서영일, 김영재 교수이다.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375. 서영일은 서울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라고 말한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08; 김영재, 『박윤선』, 86).

95)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08, 209; 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사상”, 22.

려 사용하던<sup>96)</sup> “진해교회 예배당에서”<sup>97)</sup>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께서 주동이 되어 운영해 나가던 소위 진해 신학 강좌를 3개월 동안 열게 되었다.”<sup>98)</sup> 정암은 진해 경화동에 있는 경화동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봉사하면서 그리했다. 이 때 이 신학 강의에 63명이 등록하여 공부하였다고 한다.<sup>99)</sup> 그 해 9월 17일에 부산에 ‘고려신학교’가<sup>100)</sup> 설립

- 96) 이에 대해서는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2002), 321, n. 12를 보라.
- 97) 이 정보는 김영재, 『박윤선』, 87에서 온 것이다.
- 98)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3. 이 하기 강좌는 6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열렸다고 한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10; 김영재, 『박윤선』, 87; 심근식, 『이 세상 끝 날까지: 한상동 목사의 생애』 (부산: 고신대학 출판부, 1984), 191; 박응규, 『한부선 평전』, 333). 그러나 허순길 교수와 이상규 교수는 8월 10일까지라고 한다(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36;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9). 허순길 교수님은 8월 10일까지 6주간 강의하고 폐강과 함께 그 날자로 수료증서를 주고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하므로(26, n. 39) 이 날자가 더 정확한 듯하다. 그 사진은 박응규, 『한부선 평전』, 332에 실려 있다. 그런데 허순길은 자신의 또 다른 책인 『한국장로교회사』, 321에서는 8월 20일까지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실수든지 아마 인쇄 착오일 것이다. 황명길, 『고려파 교회의 역사와 신학』 (파주: 고려신학교 출판부, 2013), 136에서도 8월 20일까지라고 하고 있다.
- 99)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10; 김영재, 『박윤선』, 87. 이 중에 고려신학교에 53명이 등록해서 학교가 시작했다고 한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13). 그 중 나중에 알려진 이들로 손명복, 이인재, 황철도, 최성봉, 이경석, 홍반식 목사님을 허순길 교수는 언급한다(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37).
- 100) 이상규 교수에 의하면 이 명칭은 당시 부산진교회 담임목사였던 최재화 목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9). 또한 황명길, 『고려파 교회의 역사와 신학』, 139도 보라.
- 101)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3. Cf. 박형용,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사상”, 105; 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사상”, 22. 그런데 신복운 교수님, 허순길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은 이 날짜를 9월 20일이라고 하셨다(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나엘.” 80;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0 그를 따라서 박응규, 『한부선 평전』, 333; 이상규, “한상동과 고려신학교”, 『한상동과 그의 시대』 [서울: SFC, 2006], 9, 30, 59, n. 40). 이에 대해서 신학교 설립위원회가 17일에 열려 고려신학교라고 하였고, 개강이 20일이라고 김영재 교수가 밝히고 있다(김영재, 『박윤선』, 88). 서영일은 심근식 목사 책인 『이 세상 끝 날까지: 한상동 목사의 생애』 (부산: 고신대학 출판부, 1984), 191에 근거하여 신학교 설립위원회구성이 5월 20일이라고 하고 있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10). 그리고 장소도 일신 여학교 강의실이라고 하고 있다(211f.). 당시 일신여학교였고 그것이 지금의 금성중학교라고 밝힌 이는 허순길 교수와 김영재 교수이다(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0; 김영재, 『박윤선』, 88). 이상규 교수는 금성고등학교 (구 일신여학교) 교실에서 개교식이 열렸다고 했다(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9, 30). 일신여학교는 본래 호주 선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던 학교로 일제 탄압으로 해체하여 당시에 비어 있어서 그곳 교실을 빌어 시작했던 것이고, 그곳을 호주 선교회가 다시 사용해야 해서 1947년 3월 5일에 초량교회의 별관 유치원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라고 한다. Cf.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3.

되어, 당시 부산진 일신여학교(지금의 금성 중학교) 교실을 빌려 수업을 시작했다고 한다.<sup>101)</sup> 본래는 박형룡 교수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와서 개교하려 하였으나 이를 위해 봉천신학원 학생이었던 남영환(南永煥) 전도사가 모시러 가는 것이 38선에서 군인에게 발각되어 돌아오게 되자 우선 정암을 학장 서리로 하여 신학교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sup>102)</sup> 당시 고려신학교 설립취지서도 정암이 썼다고 한다.<sup>103)</sup> 그런 뜻에서 “어떤 점에서 그가 고려신학교의 진정한 설립자였고, 그의 신학입교의 의지가 고려신학교를 지탱해가는 힘이였다”는 이상규 교수의 말은<sup>104)</sup>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1960년 10월까지 정암은 부산 고려신학교 교수, 교장 서리와 2대 교장을 역임한다.

1947년 10월에 송상석(宋相錫) 목사가 박형룡 박사를 만주로부터<sup>105)</sup> 모셔와 부산에 도착하여<sup>106)</sup> 고려신학교 교장직에 부임하였고(10월 14일 노진현 목사가 시무하던 부산중앙교회당),<sup>107)</sup> 이 때 조선신학교에서 성명서를 냈던 51인 학생들 가운데서 34명이 고려 신학교에 합류하여 학생수가 120명이 되었다고 한다.<sup>108)</sup> 그러나 “처음부터 전국 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 신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박형

102) 남영환, 『한국 교회와 교단: 고려교단사를 중심으로』(소망사, 1988), 302;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11;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0;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325.

103)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11. 이 설립 취지서는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323-25;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30-33에 실려 있다.

104)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12.

105) 당시 50세의 송 목사는 1947년 5월 20일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가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만주로 갔다가 9월 20일에 귀국했다고 한다. 이 정황과 그의 심정에 대해서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7을 보라.

106) 그 과정의 복잡성에 대하여는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7-49; 김영재, 『박윤선』, 91을 보라.

107)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27. 이 때 박윤선 목사와 한부선 선교사의 교수 취임сро도 같이 거행했다고 한다(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9; 김영재, 『박윤선』, 92).

108)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27. 서영일의 이 진술은 1947년 10월 31일자 헛트의 마르스텐에게 보낸 편지; 남영환, 『한국 교회와 교단』, 305; 그리고 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회사 (1)』(광주: 한국복음문서협회, 1983), 73에 근거한 것이다. 34명이 편입한 사실은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9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룡 박사는<sup>109)</sup> 반년 후인 1948년 4월에 자진 사임하고,<sup>110)</sup> 5월 17일에 상경하여 6월에 남산 조선신궁 터에서 “장로회신학교”를 시작하게 된다.<sup>111)</sup> 이는 “1948년 6월 3일에 109명의 편입생으로 개교하였다”고 한다.<sup>112)</sup> 후에 1951년에 다시 세워진 총회신학교 교장으로 1953년 9월 2일에<sup>113)</sup> 취임하면서 박형룡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한국 교회 신학의 수립이란 결코 우리가 어떤 신학체계를 창작함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의 바른 신앙을 그대로 보수하는 신학, 우리 교회가 칠십년 전에 창립되던 당시에 받은 그 신학을 우리 교회의 영구한 소유로 확보함을 이 름이다.<sup>114)</sup>

- 
- 109)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54.  
 110)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 154. 또한 이를 4월로 확인하면서 논의하는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61, n. 81을 보라.  
 111) 홍치모,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294. 이 때 편입해 왔던 학생들을 비롯한 반수의 학생들이 고려신학교를 떠나 서울로 떠나간다(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68). 그 중 30여명이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인 1948년 5월 27일에 그 동안 교수해 주신 박윤선, 한부선, 한상동, 마두원(D. R. Malsbary), 최의손(W. H. Chisholm) 목사와 좌담회를 가지면서 자신들이 “조선신학교에 던져진 폭탄이 된다는 심정으로 서울로 갑니다”고 했다고 한다(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67).  
 112) 김납식, 『해원 정규오 목사』(광주: 해원기념사업회, 2007), 164. 따라서 그해 7월 9일에 1회 졸업생 25명을 배출했는데 그 명당은 다음과 같다: 김준곤, 김덕수, 백예원, 김동수, 박창환, 박치순, 박요한, 박창영, 박충낙, 손치호, 손두환, 신복운, 이노수, 염두섭, 이양배, 장세용, 윤광섭, 항종관, 최석홍, 차남진, 전성성, 조원근, 정희찬, 박신규, 정규오(김납식, 『해원 정규오 목사』, 164).  
 113) 이 때는 1953년 9월에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38회 총회에서 김재준을 제명 처리하던 그 시기이므로, 이 때까지 총회 안에 (1946년 6월 남부 총회인 32회 총회에서 직영 신학교로 인정받았던) 조선신학교와 (1949년 35회 총회에서 직영으로 인정받은) 장로회 신학교가 있어 복잡하던 구조가 깨진 후라고 할 수 있다. 그 전에 한경직은 이 두 신학교 통합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1951년 36회 총회는 양 신학교를 폐교하고 새로운 “총회신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했고, 조선신학교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1953년 9월에 호헌 총회를 만들어 분열해 나간 것이다. 그래서 1951년에 감부열(Archibald Campbell) 선교사를 교장으로 하여 총회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학교가 세워지게 된다. 이 과정에 대해서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66, 91, n. 129, 그리고 박용규, 『한부선 평전』, 407을 보라.  
 114) 박형룡, “장로교신학교 교장 취임식 연설”, 1953년 9월 2일,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 263에서 재인용.

한편 한상동 목사가 1946년 7월에 초량교회의 청빙을 받아 사역하게 되자<sup>115)</sup> 1947년 3월 5일에는 초량교회 부속 건물로, 또 다른 교회 건물로, 그리고 4월 15일에 다시 광복동의 적산 가옥을 확보하여<sup>116)</sup> 옮겨 간 고려신학교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초기에 홀로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치며 (박형룡 박사가 떠난) 1948년 5월부터는 2대 교장으로도 섬긴 정암과<sup>117)</sup> 1946년 10월 28일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sup>118)</sup> 군정 군목이었던 정통장로교회의 목사인 John Betzold의 소개로 한상동 목사를 만나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부탁받고 허락한 선교사 한부선,<sup>119)</sup> 그리고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 그의 동생 한명동 목사 등의 노력으로 점점 공고한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sup>120)</sup> 이 당시 어려운 형편의 단면을 한부선 선교사가 선교부 총무에게 보낸 다음 같은 편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박윤선과 그의 일곱 식구는 방 두 개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이 아내는 이웃으로 물을 길러 가야만 하였고 이 때문에 구박도 많이 받았습다. 비가 오면 그 집은 새서 부엌 바닥에는 물리 고여 있습니다. 박윤선은 매일 신학책에 코를 박고 살림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걱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 목사가 그에게 자기 집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 내외는 방 하나에 살면서 먹고 자고 손님을 맞이

115) 이에 대해서는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3을 보라.

116) 이 일은 한부선 선교사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Cf.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3f. 그래서 초창기에 '보마리 신학교'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한다(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4).

117) Cf.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80;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2, 93;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326.

118)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17. 허순길 교수는 한부선이 "1946년 10월 27일에 배편으로 부산에 도착하여, 군목 벵돌드 목사 집에 머물면서 한상동 목사와 접촉하게 되었다"고 한다(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2).

119)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18. 그는 한국에 다시 온지 "2주 후인 1946년 11월 13일부터 고려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기 시작했다"(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2). 이는 11월 14일자로 그 부인에게 쓴 편지에 근거해서 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120)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3. 그 외 이상근, 박순혁 목사도 초기에 강사로 수고하였다고 한다. Cf.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42.

하고 있습니다.<sup>121)</sup>

그러다 정암은 “여행 경비를 제외한 모든 재정 지원을 얻어”<sup>122)</sup> 1953년 11월 2일에<sup>123)</sup> 화란 자유대학교에 가서 1954년 3월까지 신약학을 연구할 수 있었다.<sup>124)</sup> 이 기간 중 정암이 사모님께 보낸 편지가 「파숫군」 1954년 3월호에 게재되어 있어 당시 정황의 일부를 알 수 있다.<sup>125)</sup> 그 투와 내용에 대해서 박혜란은 사모님과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암의 의도를 오해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sup>126)</sup> “편지를 너무 기다리지 마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편지를 종종하시오.”와 같은 말들이 그런 오해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 뒤에 “아침마다 두어 시간씩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는 말도 잘 보면 어떠했을까 생각된다. 또한 “나를 위해서는 기도만 하고 돌아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히 받기 전에는 안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면 교회에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는

121) Bruce Hunt's Letter to Robert Marsden,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ittee on Home Mission and Church Extension, OPC, 14 May, 1948,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15에서 재인용.

122) Bruce Hunt가 John Galbraith에게 1953년 5월 29일에 보낸 편지에 근거하여,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61.

123) “도 화란, 박교장 환송”, 『파숫군』 (1953년 11월): 32에 근거하여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61, n. 280.

124) 그러나 공식적인 기록에는 남은 것이 없었으니 R. Schippers 교수의 인도 하의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특별 학생이었다고들 생각한다. Cf.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63. 그러나 사모님의 사고 이후 스키퍼스 교수가 1954년 5월 18일자로 보낸 편지에 의하면 논문을 끝내고 규정된 시험을 통과하면 학위를 수여 하겠다는 것이었으니(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65f.) 자유대학교에서의 정암의 공부가 전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 때 정암이 사모님께 보낸 편지가 「파숫군」 1954년 3월호에 실렸다. 이를 전제한 내용이 여러 곳에 있으나 박혜란, 『목사의 딸』, 51f.에도 있다. 사실 이 호에는 사모님의 교통사고에 대한 고려신학교 학생인 황영갑 씨의 조사도 실려 있었다(박혜란, 『목사의 딸』, 63f.)

125) 그래서 이 편지는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다. 근자의 예로는 박혜란, 『목사의 딸』, 51-52에 실려 있다.

126) 박혜란, 『목사의 딸』, 52-54.

127) 박혜란, 『목사의 딸』, 53에 이에 대한 오해가 표현되어 있다.

말도 성령이 화란에만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sup>127)</sup> 공부하는 과정도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정암의 생각을 표현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것이 가족을 만나 보는 것보다 좋습니다. 당신도 나를 만날 날을 기다리지 마시오. 하나님만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길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히 받아 돌아가는 것이오” 같은 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표현한 말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1954년 3월 18일에 일어난 사모님의 교통사고 소식을<sup>128)</sup> 전보로 전달받고, 떠나 왔으나 결국, 3월 20일 오전 11시에 “고려신학교 이사회 중심으로 신학교 장으로” 진행한 장례식<sup>129)</sup> 후인 4월 1일에 부산에 도착한다(정암 48세 때).<sup>130)</sup> 귀국하여 먼저 미 해병 사령부에 편지하여 아내를 치어 죽게 한 트럭 운전병을 선처해 주도록 부탁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곧 바로 4월 2일부터 고려신학교 경건회 인도와 강의를 시작하였다고 한다.<sup>131)</sup>

이 짧은 화란 유학 기간에 대해서 정암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화란 유학 기간은 길뻘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때의 연구 결과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화란 유학이 아니었다면 신, 구약 주석 저술에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sup>132)</sup> 사실 간하배 교수는 정암이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소개하고 인용한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했다.”<sup>133)</sup>

128) 그 교통사고의 자세한 정황은 박혜란, 『목사의 딸』, 54f.에 실려 있다.

129) 박혜란, 『목사의 딸』, 63. 이 때 조사를 한 고려신학교 학생 황영갑의 조사는 박혜란, 『목사의 딸』, 64에 실려 있다.

130)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64; 박혜란, 『목사의 딸』, 67.

131)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65. 이를 밝히면서 가족으로서의 서운한 마음을 표하는 박혜란, 『목사의 딸』, 69, 280f.도 보라.

132)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107.

133) Harvie M. Conn,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Part IV,”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0/2 (May, 1968): 111. 이상규 교수도 간하배 교수의 이말에 동의하면서 여러 번 이 점을 말하고 있다. 이상규, “박윤선의 신학과 설교”, 『한국 교회 역사와 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231, 235.

또한 1954년 ICCC 제2차 세계대회에 참여했다가, 9월 페이프 신학교가 개강 예배를 할 때 칼 메킨타이어의 주선으로 한상동 목사와 함께 명예 신학박사 학위(D.D.)를 받았다.<sup>134)</sup> 그리고 10월에 부산 삼일교회에서 이화주 전도사와 재혼하여<sup>135)</sup> (초혼의 3남 2녀에 이어) 2남 1녀를 두게 된다.

부산에 있는 동안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주석을 써서 요한 계시록(1949),<sup>136)</sup> 공관복음(1953), 로마서(1954), 바울서신(1955), 히브리서, 공동서신(1956), 시편(1957), 요한복음 (1958) 주석을 출간한다.

1960년 7월 하순 어느 주일에 발생한 그 유명한 서아도(Arthur Boyce Spooner) 선교사 환송 예배 건으로<sup>137)</sup> 주일 성수 문제로 논쟁을 하고 9월 24일에 결국 고신을 그만 두었다.<sup>138)</sup> 이재만 목사가 있는 동래 장전동의 작은 초가집을 전세 내어 살다가,<sup>139)</sup> 1961년 2월 5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얼마 전부터 모이기 시작한 동산교회에서<sup>140)</sup> 목회를 시작해 1964년 4월까지 시무한다. 동산 교회에 대해서 정암은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이 교회는 나의 일생에 잇을 수

134) Cf.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69. 정성구 등은 이를 1953년 9월이라고 하나(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376), 아마 한 해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135) 이에 대한 박혜란의 서운한 마음의 표현으로 박혜란, 『목사의 딸』, 72f.을 보라.

136) 홍치모 교수는 1949년 봄 이 주석의 간행 때로부터 정암이 “보수적 칼빈주의 성경신학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기 시작”했다고 한다(홍치모,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296). 1954년에 계시록 주석 재판이 나올 때는 N. B. Stonehouse 박사가 추천서를 쓰기도 하였다. Cf.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391.n. 28에서 재인용.

137) Cf.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81f.; 김영재, 『박윤선』, 132f.

138) 이 때의 복잡한 상황과 논의에 대해서는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79-83;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129-37; 김영재, 『박윤선』, 133-38을 보라. 당시 고신 상황은 “박윤선이 남기공간 공간에 그 제자들인 고려신학교 5회 동기생들, 곧 홍반식(1961), 오병세(1961), 이근삼(1962)이 자리를 뒀으나 박윤선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는 이상규 교수의 말이 잘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15, 36).

139) 김영재, 『박윤선』, 149. 이 때 도움을 준 분들이 이재만 목사, 방지일 목사 등이었다고 한다. 1961년 초 봄에 방지일 목사가 시무 하던 영등포 교회에서 사경회를 가졌다고 한다(151).

없는 위로와 사랑의 원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내가 그 교회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sup>141)</sup> 고신을 그만 두고 있을 때인 그 어려운 시기에 청빙 받아 목회하던 마음이 잘 나타나는 회고라고 여겨진다. 이 기간 중에도 정암은 내수동 교회에서 시작한 칼빈 성경연구원, 장소를 동산 교회 예배당으로 옮겨 개혁신학교로 명명된 신학교도 하였다.<sup>142)</sup> 그러나 1962년 11월에는 시의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학생들이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 등이 문제 되었고,<sup>143)</sup> 마침 1962년 11월 22일에 정암이 총회신학교 교수로 부름을 받아<sup>144)</sup> 이 개혁신학교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sup>145)</sup>

그리하여 1963년 3월부터 1974년 11월까지 정암은 총신에서 교수, 신학대학원장(1964) 7대 교장(1964년-), 총신 부산 분교 교장(1965년 3월-1966년말)과 대학원장(1969년-)을 역임한다. 정암은 이 기간 동안 “한국 교회의 기둥 같은 신학자 박형룡 박사와 함께 가

140) 동산교회는 새문안 교회 성도들 가운데 WCC의 신학적 문제를 지적하고 정통적으로 살리는 공용진 장로 가족을 비롯한 77명의 성도들이 모여 1961년 1월 1일에 서대문구 월남대사관 옆에 있던 장지환 집사의 소유 건물에서 모이기 시작한 교회로 첫 예배 때는 당시 총회신학교 교장이던 명신홍 목사가 “퍼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고 한다. Cf.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382, n. 15. 그러므로 이미 설립된 교회가 다음 달에 박 목사님을 청빙해서 사역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홍근섭 목사와 고신 측 행정 보류 노회에 속해 있던 목사들이 이 교회를 정암에게 소개하였다고 한다(김영재, 『박윤선』, 152).

141)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109.

142) 이에 대해서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402f., n. 42. 처음에(1961년 5월?) 15명으로 시작된 학생들이 1961년 9월에는 40여명이 되었다고 한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94; 김영재, 『박윤선』, 153). 사실 개혁신학교는 마산 문창 교회와 관련된 소송 문제로 일어난 논쟁 때문에 정암이 1957년에 교장직을 사면하고 4월 11일에 서울로 가서 5월 10일자로 “전국 교회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팜플렛에 밝히고 시작했던 신학교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는 1957년 9월 13일자로 고려신학교와 합동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121-23을 보라.

143) 이 두 가지 문제는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295f.에서 언급되고 있다.

144) 이 날이 “고신 측이 환원을 결행한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김영재, 『박윤선』, 155를 보라. 이 청빙에 백남조 장로와 노진현 목사의 기여에 대한 증언으로 노진현, 『진실과 증언: 노진현 목사 회고록』(부산: 새중앙교회 출판 위원회, 1995), 109를 보라.

145) 학생들은 총회신학교로 편입되었다고 김영재는 말한다(김영재, 『박윤선』, 155).

르친 일”과 “언제나 불타는 가슴으로 학생들에게 … 칼빈주의 신학”을 주고자 한 것을 특별히 언급한다.<sup>146)</sup> 이런 점을 주목한 박용규 교수는 “총신이 더 한층 개혁주의를 선명하게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박윤선이 총신 교수로 보임한 이후 나타난 뚜렷한 현상이었다”고<sup>147)</sup> 역사적 판단을 내려 제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정암은 영도에 있던 총신 부산 분교 교장도 하면서 수정동에 있는 부산 성산 교회 목회도 하였고(1965년 3월-1967년 2월), 부산 분교가 1966년 문을 닫자 다시 총신을 섬기기 위해 서울로 와서는(1967년 3월) 가장 바쁜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sup>148)</sup> 상도동에 한성 교회를 개척해 목회하는 일도 겸한다(1968년 7월-1973년).<sup>149)</sup>

총신 교수로 있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석 집필과 출간에 힘써 사도행전(1961), 소산지서(1962), 고린도전후서(1962), 이사야서(1964), 예레미야서(1965), 에스겔, 다니엘서(1967), 창세기, 출애굽기(1968),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1971), 잠언(1972), 욥기, 전도서, 아가서(1974)를 출간한다. 담석증으로 고생하던 1971년에는 성경신학 책도 내었다. 정암의 딸은 그의 집필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아버지는 한번 하겠다고 하면 해내는 성품이었기에 늘 주석 작업에만 몰두하셨다. 신학교 강의가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계셨다.”<sup>150)</sup> 그의 주석 작업은 이런 노력의 결과였던 것이다.

총신 교수 은퇴(1974년 11월, 70세) 후 도미하여(이미 1973년 7월에 가족들이 이민하여 자리잡고 있던)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족들과

146)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7.

147) 박용규, “한국 교회와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의”, 179, 김영재, 『박윤선』, 156에서 재인용.

148) 김영재, 『박윤선』, 165: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신약한 전 과목을 다 맡아 교수하였다(성경해석학, 신약석의, 신약 석의, 복음사, 사도사, 목회서신, 요한계시록, 신약신학, 사도사). 그리고 대학부 4학년을 위해서는 동양철학 비판과 신약 개요를 강의하였다.”

149) 1974년에는 김진택 목사를 담임 목사로 추천하여 세우게 하고, 자신은 매일 첫 주일 공예배 설교하는 것으로 협력하였다고 한다(김영재, 『박윤선』, 165).

150) 박혜란, 『목사의 딸』, 238.

함께 3년 7개월 보내면서,<sup>151)</sup> 룻기(1976),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1978),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더서(1979)을 내고, 복잡한 총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초빙 받아 1977년 2학기에 초청 교수로 봉직하면서 “동산 교회 강단을” 섬기다가,<sup>152)</sup> 총신 상황이 더 악화되자 1979년 3월에 다시 총신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하고(1979년 3월-1980년 11월까지 시무), 주석완간 감사예배를 총신대학교 신관 강당에서 하나님께 드린다(1979년 10월 9일). 그 얼마 전인 1979년 9월 3일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부선 선교사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파에 공헌하고 훈련된 봉사의 기술과 신실한 삶의 모범을 보인” 네 분에게 명예 신학 박사(D.D.)를 수여하였는데,<sup>153)</sup> 간하배 교수 등의 노력으로 그 중의 하나를 정암이 받게 된다.<sup>154)</sup>

총신 상황은 더 악화 되어 총신에서는 정암을 다시 모셔와서 학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0년 4월 21일부터는 학장 서리를 부탁하게 된다. 그러나 정암이 총신에 와 있어도 총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시 교권의 대표자인 이영수 목사에게 정암이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하여 교회 정치로부터 물러나도록 호소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위협하는 말로 대응할 뿐 아니라 행정에는 무능한 인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정암은 학장 서리직을 사임하였다.<sup>155)</sup>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홍치모 교수는 “정암과 같은 신학자를 모시기에는 한국 교회와 신학교는 너무 혼탁하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이다.”고 말한 바 있다.<sup>156)</sup> 더구나 1980년 2학기 개강 예배를 교수진과 상의하지 않고 이사들이

151) 김영재, 『박윤선』, 167.

152) 이 정보는 김영재, 『박윤선』, 167을 보라.

153) “Four Eminent Leaders Recognized by Honorary Degree,” *The Bulletin*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Fall 1979), 8f.,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304에서 재인용.

154) Cf. 박형용,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사상”, 105f.

155) 김영재, 『박윤선』, 227f.

156) 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사상”, 26.

행하고, 10월 7일에는 학적부를 교수들과 상관없이 반출하고, 10월 24일에 5명의 학생들을 제명하자,<sup>157)</sup>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신복운, 윤영탁, 김명혁, 박형용 교수는 1980년 10월 2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 27일 경건회가 마친 후에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sup>158)</sup> 그러자 신대원 학생들이<sup>159)</sup> 1980년 10월 28일 남서울 교회당에 모이기 시작하여 학생들의 요청으로 네 교수님들과 함께 11월 11일 오후 2시에 남서울 교회 예배당에서 개교예배를 드림으로 합동신학원이 설립된다.<sup>160)</sup> 정암은 합신의 초대 원장으로 청빙받고, 11월 18일에 취임하여(76세) 사역하시다가,<sup>161)</sup> 1988년 6월 30일에(84세) 소천하시기까지 학생들에게 강의하시면서 명예원장으로 수고하였다. 정암의 아들인 박성은과의 인터뷰에 근거해서 서영일은 “합동신학교는 틀림없이 박윤선이 한국교회에 남겨 놓은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그리고 이 학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웨스트민스터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162)</sup>

이 기간 동안에도 정암은 1981년 11월부터 장안교회를 목회했고, 1987년 2월까지 목회 하다가 1987년 4월 19일에 화평교회와 병합하고, 1987년 4월 27일에 성역 5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157) 이상에 대해서 김영재, 『박윤선』, 229를 보라.

158)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314. 정암은 10월 31일에 대학원장직 사직서를 정성구 학장에게 제출하였다(318).

159) 이처럼 이 신학교 설립이 학생들 중심이었음을 잘 드러낸 조병수, 『합신 30년』 (수원:영음사, 2011), 24를 보라.

160) 이 합신 설립 예배 때 정암은 축도 순서를 감당하였다. Cf.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318.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정암이 “합동신학교를 설립하였다”(김영재, 『박윤선』, 220)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부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암은 합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합신을 설립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다. 오히려 조금 뒤에 김영재 교수님께서 “새로 학교를 시작하려는 교수들과 학생들과 행동을 같이 하기도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신 것이 더 정확한 말이다(김영재, 『박윤선』, 230).

161)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83.

162)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48. 그는 또한 “이 최후의 선택이 그가 한국 교회에 남긴 어쩌면 가장 큰 족적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305). 김영재는 정암이 “교권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신학교, 옮겨 교육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설립하여 올바른 신학 교육의 기초를 든든히 닦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고 바로 지적하였다(김영재, 『박윤선』, 230).

이 기간, 즉 소위 합신 기간 동안에 그는 장로교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든 합신 교단 헌법의 의미를 밝히고 그 정신을 분명히 하는 『헌법 주석』을 쓰고(198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석』을 쓰고(1989년 유작), 『성경과 나의 생애』(유작, 1999)를 썼다. 또한 그의 사후 부산 고신 시절부터 그가 했던 그의 여러 강의안 등에 기초한 『개혁주의 교의학』이 2003년에 출간되었다.

정암의 생애와 신학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서영일 박사는 다음 같이 말한다:

그 분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을 돌보는데 게으른 것을, 그것이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는 강철이 아니었다. 압력에 굴복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였다.… 약점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진솔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평생 동안 매일 몇 시간씩을 무릎을 꿇고 보냈다. 남들이 그를 해하려 할 때에도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에게도 겸손하고 온유하였다. 지혜와 책략이 부족한적은 있었어도 원리를 꺾으려 한 적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진지한 사랑을 품고 있었다. 그가 쓴 어떤 책보다도 그의 삶이 이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쓰는 필자에게도 그의 사랑과 경외심이 전율로 다가 온다. 경건과 학문이 어우러진 분이여! 약한데서 더욱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분이여!<sup>163)</sup>

서영일 박사의 부탁으로 이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정동민 교수도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을 통하여 박윤선이라는 한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에 맞게 살고 가르치려 한 연약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된 한 사람을 말이다 이른바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형성해 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

163)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396.

고 이렇게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그것들이 나의 삶에서도 체현되고 있음을 느끼고 감사할 것이다. 더불어 수치심이 뼈 속에 깊이 스며들기도 하였을 것이다.”<sup>164)</sup> 우리들이 정말 조상들의 신앙과 삶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하면서 장동민 박사는 아주 고전적인 말을 인용하고 있다: “아! 수치심을 모르는 세대여!” 아마 이것이 정암의 삶에 대한 오늘날의 논쟁에 대해 매우 적절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작금의 이 논의에 대해서 김영재 교수님이 미리 아주 정확하게 말한 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정암에 대한 평전에서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이다:

박윤선이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그의 자녀들이 듣는다면 아버지에게 대하여 어쩌면 더 서운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한 나머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사실과 그것이 박윤선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으며 그가 고민했던 부분이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기에 하는 말이다. …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녀들의 당연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 박윤선이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채로 보낸 그 많은 세월을 되돌릴 수 없듯이, 서로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므로 채우지 못한 공백을 달리 메울 길이 없었다.<sup>165)</sup>

『목사의 딸』이라는 책으로 있게 된 작금의 논의는 바로 이런 서운한 자녀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4) 장동민, “역자 후기”,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397.

165) 김영재, 『박윤선』, 25f.

## II. 정암의 개혁 사상

정암의 사상이 개혁주의적이라는 것은 아주 자명한 것이다. 특히 다음의 강조를 보라: “박윤선 박사는 철저한 개혁주의적 신학자이다.”<sup>166)</sup> “이 개혁주의 신학 사상은 그의 몸에 깊이 배여 있어서 설교와 저술과 생활과 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물씬 풍겨 나오곤 하였다.”<sup>167)</sup> “박 목사님은 한국 교회 안에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이며 개혁주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였다.”<sup>168)</sup> “박윤선 박사의 신학 사상은 개혁주의이며 그것은 그의 저서와 주석집에서 명백히 나타난다.”<sup>169)</sup> 그것은 이미 성경에 명확히 나타난 신학이며, 오랜 전통이 잘 수립한 신학이다. 그러므로 오병세 교수님께서 잘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박윤선 신학이란 독특한 그 나름대로의 신학을 일컫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의 신학이요, 칼빈주의의 신학이며, 개혁주의 신학이고, 웨스트민스터 교리표준에 밝혀 놓은 장로교 신학을 이어 받은 신학이다.”<sup>170)</sup> 이와 같은 개혁 신학 사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특히 다음 몇 가지 면에서 정암의 개혁주의 사상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이다.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분은 드물다고 할 정도로 정암은 신학과 교회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정암은 “하나님 주권 사색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는 사색이다(시 139:9-10)”라고 말한다.<sup>171)</sup> 신복윤 교수는 “칼빈주의 근본 원리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그의 전체 생활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 중

166)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나엘,” 89.

167)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나엘,” 91.

168) 김명혁, “말씀과 기도의 목사, 박윤선,”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92-102, at 96.

169) 박형용,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사상”, 106.

170) 오병세, “박윤선 신학이 한국 주경신학에 미친 영향”,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299-331, at 315.

171) 박윤선,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와 칼 발트의 기본원리”, 『파수꾼』(1552년1월): 15.

심으로 사는 그의 신앙의 참모습을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은 가까이서 항상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고 쓰고 있다.<sup>172)</sup> 김명혁 교수님은 “박 목사님은 한마디로 하나님만 아신 분이었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신 분이였다”고 말할 정도이다.<sup>173)</sup> 정성구 교수님은 정암의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살다간 그의 승리적 생애”라고 까지 표현한 바 있다.<sup>174)</sup> 이와 같은 정아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런 신본주의를 강조한 정암의 가르침이 “목회자들의 권위주의 강화에도 크게 기여 했다”는 말은<sup>175)</sup> 성립하기 어려운 말이다. 오히려 정암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을 때에 목회자들이 권위주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사실 정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권위주의로 나아가게 됨을 항상 통렬히 비판한 것이다. 권위주의는 정암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기를 요청했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을 항상 비판하였다. 그것이 그를 치하기 위한 자리에서 그가 했던 “팔십삼년 묵은 죄인”이라는 표현에서<sup>176)</sup> 잘 드러난다. 정암은 권위주의와는 권위가 먼 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도 정암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들은 별로 권위주의적이지 않다. 정암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수록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더구나 정암의 하나님 제일주의는 구체적인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여주동행”(與主同行)이라는 그의 강조 어귀가 잘 드러내는 대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강조한 것이다. *Coram Deo*를 “신전의식”(神前意識)이라는 말로 번역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의 강조는 늘 계속되었다. 따라서 정암에

172)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나엘,” 83f.

173) 김명혁, “말씀과 기도의 목사, 박윤선,” 94.

174) 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376.

175) 박혜란, 『목사의 딸』, 240.

176) 박혜란은 이를 “육십년 묵은”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박혜란, 『목사의 딸』, 255).

게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그와 대화한 사람들이 잘 느끼게 되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노진현 목사님의 다음 말씀은 매우 적절한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윤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 보면 기도의 냄새가 난다.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니 자신이 있다.”<sup>177)</sup>

둘째는 성경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평생 성경을 주석하도록 한 힘이었을 것이다. 그도 신성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 가까이 흐르는 시냇가를 걸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진 적이 있었으나, 즉시 ‘네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놀랍게 확신하게 되었고, 그 후 정암은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전혀 없고 성경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만족했다”고 한다.<sup>178)</sup> 후에 신학을 배운 후에는 정암은 이것이 칼빈주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성경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정암은 “칼빈주의 신학이야말로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의 신학”이라고 한다.<sup>179)</sup> 이와 같이 정암에게는 성경이 그의 생애와 사상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신복윤 교수님은 박윤선 목사님을 “성경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하신다.<sup>180)</sup> 그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홍정길 목사는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에 그렇게 헌신한 분은 이제껏 보지 못하였다”고 했다.<sup>181)</sup>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추모예배에서 한부선은 그들의 만남과 우정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한 후에 “박 박사는 성경을 위하여 싸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를 본받읍시다”라고 결론 맺었다고 한다.<sup>182)</sup>

177) 노진현, 『진실과 증언: 노진현 목사 회고록』, 112.

178)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20.

179)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7.

180)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70.

181) 홍정길, “사명 감당을 선포할 때의 도전, 박윤선 목사와 나”, 빛과 소금 (1988년 8월):

197,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389에서 재인용.

182)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389.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의존하여 생각하는 일을 정암은 “계시의존사색(啓示依存思索)”이라고 표현하였다. “칼빈주의 사상 체계는 하나님을 절대주권자인 인격적 신으로 믿기에 계시의존사색을 한다”는 것이다.<sup>183)</sup> 그런 입장의 신앙을 계시의존신앙이라고 하며, 그런 신학을 계시의존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홍치모 교수께서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과의 논리는 Westminster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였던 Cornelius Van Til 교수와 화란의 신학자 H. Bavinck의 이론을 소화시켜서 표현한 말이다.”<sup>184)</sup>

그래서 정암에게는 성경 주석이 그렇게도 중요했다. 그리고 정암의 이 성경 주석 작업은, 박영희 교수께서 잘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가장 실질적인 공헌을 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sup>185)</sup>

셋째는 교회 중심주의이다. 이 때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그런 교회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정암은 열심이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서 합동신학원이 세워진 후에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제도가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sup>186)</sup>

정암이 합신에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사료된다. 정암은 노회와 총회가 상회(上會)가 아니라는 것,<sup>187)</sup> 즉 더 높은 기관이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더 넓은 회의체’라는 것을 개혁신학의 정신에 따라 매우 강조하였다.<sup>188)</sup> 그 누구도 주관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도록 하시려

183)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연구,”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379.

184) 홍치모,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297.

185) 박영희, “한국의 주경 신학과 박윤선 주석의 의의”, 『경건과 학문』 (서울: 영음사, 1987), 86=『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367.

186) 이 시기에 정암이 교회의 제도와 정치 형태에 관심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일화로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6-17을 보라.

187) 박윤선, 『헌법 주석』 (서울: 영음사, 1983), 157.

188) 박윤선, 『헌법 주석』, 158.

는 그 정신이 정암의 강조점에 고스란히 나타나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정암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회의할 때만 ‘당회 의장’, ‘노회 의장’, ‘총회 의장’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총회는 개회할 때마다 새로 조직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폐회(閉會)함과 동시에 파회(罷會)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강조하였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장로교회의 참된 정신을 잘 드러내어 준 것이다. 이런 것을 합신의 헌법에 반영해서서 그 헌법을 학생들에게 손수 가르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넷째는 일반은총과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적극적 삶에 대한 강조이다. 이를 강조하면서 신 복운 교수님은 “개혁주의는 영적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세 생활에 있어서도 ...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또 그대로 실현하기를 원한다”고 정암의 강조점을 요약한다.<sup>189)</sup> 이와 관련하여 “일반 은총을 감사하게 누리면서 문화 활동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는 정암의 말도 인용하시는 것이다.<sup>190)</sup> 정암은 또한 “칼빈주의는 신령한 천국을 중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과 사회 정치면에서도 찾아 드리려고 한다”고 하신다.<sup>191)</sup> 물론 서영일이 그의 논문 가운데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는 현실 정치와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sup>192)</sup>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정암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 것이다.

이 모든 활동의 완수를 위해 정암이 강조한 것이 요한계시록 2:10 말씀을 활용한 “지사충성”(至死忠誠)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이 구호가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서 나온 것이다”는 말,<sup>193)</sup> 그리고 이를 “유교

189)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dana엘,” 91.

190)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dana엘,” 91에 인용된 정암의 말.

191) 박윤선, “한국교회 주경사,” 신학지남 35/1 (1968년 3월): 11.

192) Cf.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345-83. 비슷한 지적으로 이상규, “박윤선의 신학과 설교”, 254-55도 보라.

193) 박혜란, 『목사의 말』, 240.

의 지사충성”이라고 하는 말은<sup>194)</sup>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모든 것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보다 유학을 잘 알고 그것이 옳지 않은 길임을 잘 강조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휘호도 이제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것은<sup>195)</sup>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 나아가 지사 충성식의 강조를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질문하는 것은<sup>196)</sup>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찌어다고 하고 있는 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는 결국 정암의 딸이 정암과는 상당히 다른 신학적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암이 이야기한 것은 박혜련이 마지막에 강조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believe in)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위해 부단히 그러나 잠잠히 기도함으로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함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sup>197)</sup> 믿는 사람은 박혜련이 강조한 것과 같이 이것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이것을 아주 강조한 정암을 왜 비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안타깝다. “자기노력을 의지하는 것은 죄다. 그것은 곧 행위를 의지하는 죄인 것이다”라고<sup>198)</sup> 정확히 이신칭의가 말하려는, 따라서 정암이 말하는 것을 강조해 놓고, 정암이 마치 행위에 의지하는 가르침을 준 것 같이 왜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왜곡인 것이다.

또한 정암이 “한국 교회에 팽배한 이분법적인 신앙의 토대를 만든 중심에” 있다고 하는 말도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sup>199)</sup> 정암이 강조한 개혁신학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분법적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

194) 박혜란, 『목사의 딸』, 262.

195) 박혜란, 『목사의 딸』, 262

196) 박혜란, 『목사의 딸』, 262

197) 박혜란, 『목사의 딸』, 277.

198) 혜란, 『목사의 딸』, 276.

199) 박혜란, 『목사의 딸』, 242.

하고 신앙과 삶의 연관성,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드러내는 많은 책들이 쓰여진 것은 분명히 정암의 개혁신학이 이원론적 신앙의 원천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다.<sup>200)</sup>

### III. 정암의 실천적 교훈<sup>201)</sup>

정암의 설교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해 주었다.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때때로 학교 책장에서 있었던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나 성경을 풀이하되 매우 이상하게 설명하던 설교들이나 성경에 대한 피상적 접근들과는 달리 정암이 과연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여 주실까 하는 것이 항상 학생들의 관심이었다. 더구나 당신의 삶과 인격의 무게가 실린 정암의 설교는 항상 성경의 뜻을 더 밝히 해 주셨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클로уз 업(close-up)해 주었다.

그러므로 교단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신대원 학생들이 교단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학교, 그저 성경과 교수님들의 개혁 신학을 바로 배워 그대로 목회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세워주기를 요청하고, 이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새로운 학교를 세우시는 것에 동의하시고 정암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대원 과정은 정암과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수종들어 세우기 원하시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200) 단순한 예로 안만수 편, 『박윤선과의 만남』, 1-3 (수원: 영음사, 2012-14)에서 정암으로 통해 얻은 바른 삶의 방향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이원론적 신앙에 대한 배경이 상당 부분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3), 저자 서문을 보라.

201) 이 항에 나오는 내용은 유명기 교수님께서 편집하신 책인 『그 날에 족하나라』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에 게재했던 필자의 글을 사용한 것임을 밝힌다.

원했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어른들은 교단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또 어떤 친구들은 교육 전도사 자리를 사임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남서울교회 지하실에 있는 합동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이 때를 생각할 때마다 합동신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신 남서울교회 성도님들과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정길 목사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수년 동안 교우들이 많이 불편했을 텐데도 남서울교회는 그 불편을 감수해주었다. 또한 그 시기의 1-4회 선배님들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선배님들은 이 새로운 학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교단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평생 목사가 못되고 평생 전도사로 섬길지라도 성경과 교수님들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목회하겠다는 다짐을 했었다고 한다. 희생을 각오하고 나아가신 이 선배님들은 참으로 개혁 정신을 가진 분들이었고, 성경에 충실한 개혁신학을 배워서 개혁파적으로 목회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신 역사적 인물들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우리들은 교회사 속에서만 보던 진리를 위해 희생하고 평생을 그것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보는 영광을 얻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암은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과 지사충성(至死忠誠)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그야말로 주마가편(走馬加鞭)이었다. 정암의 강조에 따라 학력을 위조해서 총신에 입학했다가 합신으로 따라 나왔던 선배 한 분은 이런 사람이 신학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시고 신학과 목회의 길을 그만 두고 돌아 가셨다는 말씀도 들었고,<sup>202)</sup>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암의 말씀 때문에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았다. 물론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 때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과 경건한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202) 무명, “자퇴의 변”, 『합동신학보』 (1982년 11월 23일), 4,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321.

세로 공부했고,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들의 교회가 변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했다.

정암이 설교를 담당하신 날은 강대상에 서시어 언제나 양복 안주머니에서 설교 원고를 꺼내어 강대에 놓고 설교하였다. 처음에는 한 두 번 그러시겠거니 했으나, 정암은 항상 그렇게 하였던 것 같았다. 주석을 완간하신 정암도 설교하실 때는 항상 새롭게 설교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설교 시간 전까지 준비하신 그 내용을 항상 심장 가까운 곳에 두시기 원하시며, 그 심장으로부터 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로 박 목사님께 이것에 대해 감히 묻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리하셨으리라고 짐작해 본다. 훗날 하늘에게 박 목사님께 여쭙어 보고 싶다.)

정암의 설교와 강의 속에서 항상 강조 되는 말은 “성경이 자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었다. 특히 변증학 강의에서 정암은 항상 “성경이 자증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셨고, 그 분을 위한 변증을 하였다. 그리고 “진실함”, “교역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것이라는 것” 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교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특히 교역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아주 자명하게 만들었다. “성령님의 감화 없이 목회하라는 것은 목사에게는 가장 큰 욕이다”라고 하신 말씀도 강하게 기억한다. 개혁신학의 강조를 따라서 말씀과 성령님을 늘 연관시키면서 제시해 주었다. 성령님께 충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것임을 아주 분명히 해 주었다. 정암의 가르침에 의하면 개혁 신학에서 성령론이 약하다든지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었다. 항상 성령님께 온전히 충성할 것을 가르치시는 정암은 언제나 성경에 충실하였다.

또한 정암은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는 항상 “당신님”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는 기도 중에서도 설교에서도 강의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독특하게 사용되던 정암의 독특한 표현법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잘 나타나는 말버릇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님의 뜻을 잘 배워 알게 하옵시고, 당신님의 나라 백성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던 정암의 그 기도와 심지어 말버릇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